통도사, 천년문화 알리는 '개산 1377주년 축제' 연다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산 1377주년 기념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연다.

이번 개산대재에서는 특히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과 참여의 장'과 개산조 자장 율사의 계율 정신을 기리는 '역사와 문화의 장'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행사 및 전시'가 마련된다.

역사와 문화 사회 공유

'역사와 문화의 장'은 개산조 자장 율사를 기리고 역대 고승의 덕을 기리는 전통의식으로 △자장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부도헌다례(10월 4일 오후 2시/부도원) △가사배견(10월 4일/성보박물관) △고흥 금탑사 괘불 특별전(10월 1일 오후 2시~2023년 4월 23일)으로 진행된다.

자장 율사 영고재 및 개산대재 법요식은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진영을 안치하고 덕을 기리는 시간이다. 부도헌다례는 통도사의 고승대덕 스님들의 덕망을 기리며 차를 올리는 시간이다. 가사배견은 석가모니부처님과 자장 율사의 가라를 직접 친견하는 자리다.

시민 나눔과 참여 유도

'나눔과 참여의 장'은 일반인들이 직접 불교 전통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영축삼보 이운(10월 3일 오전 9시 30분/부도원) △괘불헌공(10월 3일 오전 10시/ 괘불대 앞) △영축문화공연(10월 3일 오후 1시 30분/ 산성반월교 옆 무대) △제1회 전국초·중·고 사생실기대회(9월 24일 오전 10시~오후 3시/ 설선당 앞 및 경내 일대) △통도사 산사 플로깅(9월 25일~10월 16일/ 서운암, 자장암 등)이 진행된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산 1377주년 기념 '영축문화축제 개산대재'를 경내 일대에서 연다. 사진은 2020년 개산대재 모습.

영축삼보 이운은 괘불을 옮기는 의식으로 각종 번(幡), 기(旗)로 장엄된다. 이운은 부도원에서 설법전 앞 괘불대까지 이어지며, 이운 후 괘불에 공양을 올리는 괘불헌공이 진행된다.

영축문화공연은 '야단법석'이라는 부제를 붙일 만큼 시민에게 긍정적 기운을 북돋는 신명나는 무대로 진행된다. 공연에는 유명 가수 노라조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한다.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도 볼거리다. 사생대회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아름다움을 그리며 미래세대에게 전통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열린다. 참가자는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에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9월 27일 통도사 홈페이지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10월 4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각 70만 원, 은상 각 3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다채로운 문화행사 눈길

'문화행사 및 전시'는 △국화장엄(9월 3일~10월 23일/ 경내일대) △나도작가다(9월 3일~10월 10일/감로당 앞)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9월 17일~10월 4일/문수법당) △시화전(9월 17일~10월 4일/해장보각 앞) △유운불교미술전(9월 3일~9월 22일/ 명월료) △버섯사진전시(9월 24일~10월 14일/명월료)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화엄세계로의 초대'(9월 16일~10월 3일/무풍한송로 및 성보박물관 일대)로 진행된다.

국화장엄은 통도사 경내를 국화로 장엄하고 각 전각 및 시민들에게 꽃 공양을 올리는 행사다. 매년 가을 국화와 통도사를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행사로 인기다.

이번 장엄국화는 양산시에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양산시와 통도사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조형작품을 함께 조성했다. 행사장에는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직거래 장터도 함께 열린다.

'나도 작가다'는 스님들이 직접 찍은 통도사의 일상과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며, 강원 및 학원 스님들의 서예작품이 전시되는 서예전도 열린다. 시화전은 부산불교문인협회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특별전으로 의미가 깊다.

또 2022세계유산 통도사 미디어아트 사업인 '화엄세계로의 초대'는 삼라만상을 품은 보리심의 빛을 주제로 열리며 주요 콘텐츠는 디지털 미디어맵핑, 빛오브제, 디지털 민화 특별전 세 가지로 구성됐다.

통도사는 "코로나로 경직됐던 시간에서 벗어나 모든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장을 마련했다"며 "축제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에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세계문화유산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복지協, 한가위프로그램 지원사업 펼쳐

9월 7일, 불교계사회복지관 1000만 원 전달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가 한가위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및 청소년기관을 후원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9월 7일 여여선원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기관 10곳에 1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회장 정여 스님과 사회복지법인 동주 대표이사 정오 스님, 복지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불교 복지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적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를 맞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상을향기롭게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보배여행사는 이날 실내화 500개를 세상을향기롭게에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복지협의회는 9월 7일 여여선원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강신문사는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문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천태종의 뜻을 받들어 '천태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심원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한 예술의 모태가 되어 왔으며, 특히 경전의 발전과 전승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불교문학의 갈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을 재기 넘치는 문학작품으로 승화하여 시대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2022년 천태문학상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마감
2022년 10월 31일

발표
2022년 11월 21일



천태문학상
제1회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금강신문사

공모 요강
-분야
운문(시·시조·동시 5편 이상)
산문(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자격
등단과 무관하며 누구나 가능
-접수
ggbn@ggbn.co.kr
(전자우편만 가능, 연락처 기재 필수)
-마감
2022년 10월 31일

심사 및 수상자 발표
-수상작 발표
2022년 11월 21일
개별 통보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
-수상작은 금강신문에 게재

시상 계획
-대 상
1편, 상금 1천만원 및 상장 상패
-우수상
2편, 각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상패
-장려상
5편,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상패
-시상식
2022년 12월 초순

기타
-응모작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하며
수상작이 표절작이거나 기존 발표작
등으로 밝혀지면 시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금 및 상장 상패 일체를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02-723-1548
2022년 천태문학상 운영 사무국



108사찰 순례단 삼보회는 9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삼보장학회, 동국대 WISE캠퍼스 장학금 전달

9월 15일, 장학기금 1000만 원 기부

108사찰 순례단 삼보회(회장 정분남 · 이하 삼보회)가 9월 15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가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장학금 전달식에는 정분남 삼보회 회장과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박용기 대외협력처장, 여소현 이사, 이동희 이사, 이혜숙 이사를 비롯한 교내 관계자가 동참했다.

장학금은 삼보회 순례단이 매달 진행하는 108사찰 순례기도 동참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108사찰 순례기도는 9월 20일 양산 미타암에서 회향한다.

삼보회는 2013년 3월 동국대 WISE캠퍼스 삼보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학회 설립 후 학생 50명에게 장학금 5000여 만 원을 후원했다.

정분남 삼보장학회 이사장은 "불교 인재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인재불사에 동참해주신 삼보장학회 임원 및 회원들께 감사하다.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진정한 불교인재양성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인재불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삼보장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보내준 정재를 바탕으로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마하사, 자비의 쌀 1200kg 보시

9월 8일 부산 연제구청에서 전달식 개최

천년고찰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가 9월 8일 한가위를 맞아 연제구청에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마하사 신도 및 구청 관계자가 동참했다.

마하사는 이날 쌀 10kg 120포(3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쌀은 연제이웃사랑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 120세대에 전해질 예정이다.

주지 정산 스님은 "한가위를 맞아 지역에 있는 소외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내길 바란다"며 "마하사는 부산 연제구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이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마하사가 9월 8일 한가위를 맞아 연제구청에서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